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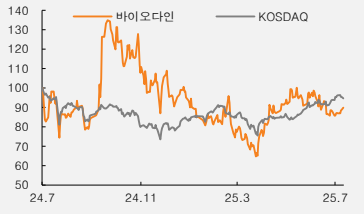
Equity Research
2025.7.25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5/7/25)	15,19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5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5F,십억원)	-
EPS 성장률(25F,%)	-
MKT EPS 성장률(25F,%)	-
P/E(25F,x)	-
MKT P/E(25F,x)	-
KOSDAQ	806.95
시가총액(십억원)	452
발행주식수(백만주)	30
유동주식비율(%)	52.5
외국인 보유비중(%)	3.9
베타(12M) 일간수익률	1.27
52주 최저가(원)	10,950
52주 최고가(원)	22,800

(%)	1M	6M	12M
절대주가	-6.8	5.3	-2.7
상대주가	-7.8	-4.9	-3.9



[첨단의료기기/디지털헬스]

박선영
seunyoung.park@miraeasset.com

김충현, CFA
choonghyun.kim@miraeasset.com

314930 · 의료장비 및 용품

바이오다인

NDR 후기: "블로잉"에 이은 "블룸앤그립" 기술

동사 기술이 적용된 로슈의 Ventana SP 400, 지난 6월 출시 완료

로슈는 동사의 블로윙 기술이 적용된 액상세포검사(LBC) 장비 Ventana SP 400을 지난 6월 일본 임상세포학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미국(FDA 승인 필요)을 제외한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8월경부터 출고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비 출시는 로슈가 자체 LBC 진단기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HPV 분자진단 장비(Cobas 플랫폼) 입찰 시 LBC 기술을 보유한 타사(Hologic, BD)와의 협력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독자 플랫폼으로 입찰이 가능해져 진단 포트폴리오의 완결성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ASCCP 및 WHO 가이드라인이 세포진단보다 분자진단을 선행하도록 개정되면서, 분자진단 분야의 강자인 로슈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진단 키트가 활용되는 로슈의 Cobas와 Ventana 장비의 글로벌 채택률 확대가 기대된다.

얼리팝 브러쉬, "블룸앤그립" 테크놀로지로 피어날까

동사의 차세대 제품인 자궁경부암 세포 자가채취 브러쉬 "얼리팝 브러쉬"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브러쉬가 꽃처럼 피어나는(bloom) 구조와, 세포를 단단히 잡아주는(grip) 구조를 접목한 특허 기술로 "블룸앤그립 테크놀로지"라는 명칭이 붙었다. 작년 말 식약처 승인에 이어, 올해 3월에는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는 CE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근 HPV 셀프 테스트 시장이 개화하는 흐름 속에서, 얼리팝 브러쉬는 점액질 채취뿐 아니라 세포 채취까지 가능해 LBC까지 확장 가능한 점이 기존 자가채취 브러쉬와 차별화된다. 현재는 국내에서만 생산 중이나, 생산 캐파 확장을 위해 베트남 법인 및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일본, 러시아를 시작으로 진출국을 점차 확대해 2027년경에 선진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Ventana SP 400 장비가 6월 말 출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은 하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매출 65억원과 흑자전환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별 Ventana 장비 론칭 이벤트, 그리고 얼리팝 브러쉬의 글로벌 상용화 확대가 주요 모멘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산기 (12월)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십억원)	4	4	12	4	5
영업이익 (십억원)	-2	-2	7	-2	-2
영업이익률 (%)	-50.0	-50.0	58.3	-50.0	-40.0
순이익 (십억원)	-4	-11	6	-1	0
EPS (원)	-195	-378	189	-33	0
ROE (%)	-65.6	-47.7	13.6	-2.3	0.0
P/E (배)	0.0	-18.4	25.1	-405.0	44,493.5
P/B (배)	0.0	4.2	2.6	7.5	8.9
배당수익률 (%)	-	0.0	0.0	0.0	0.0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Roadshow 주요 Q&A 요약

1. 자궁경부암 시장

Q) 지역별 시장 구조는?

A) 미국이 가장 크고 호주 등 서양의 선진국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WHO가 자궁경부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이 도입되며 미국 외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액상세포검사(LBC)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A) 작년부터 WHO가 이머징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WHO가 현재 캠페인하는 암은 자궁경부암이 유일하다. 자궁경부암처럼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질병이 많이 없다. 일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1번 정도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HPV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 일주일정도 머무른다.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정도로 감염력이 높다. 자궁경부암은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위해 백신접종과 함께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홀로직과 BD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기존 pap smear 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액상세포검사(Liquid-Based Cytology, LBC)이다.

기존의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방식은 세포채취용 솔로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하고,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반면, 액상세포검사(LBC) 방식은 채취한 세포를 바이알 안의 용액에 넣고 액상으로 고정하여 검체 보존이 가능해, 몇 번이고 검사를 반복할 수 있다. 기존 pap smear 방식과 달리 검체 보존이 용이해 동일 검체로 HPV 검사에 이어 다른 검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자궁경부암 백신이 성장하고 있는데, 발병률이 줄어들면 검진 수도 줄지 않을까?

A) 오히려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은 백신 시장과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자궁경부암 진단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백신을 맞아도 예방과 관리 목적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진단 참여율도 높다. 백신 접종율과 진단 참여율 모두 발병률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각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WHO의 전략적 목표는 백신 접종률 90%, HPV 검진율 70%, 치료율 90%를 달성하는 것이다.

Q)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최근에 변화가 있다면?

A) 첫번째로는 미국 ASCCP(자궁경부병리학회)와 WHO에서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자궁경부암 진단 시 세포진단(pap smear 또는 LBC) 선행에서 분자진단(PCR) 선행으로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

두번째로는 HPV 진단 시 필요한 검체 채취를 의사채취가 아닌 자가채취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2. Roche와의 파트너십

Q) Roche 파트너십의 스토리는?

A) 우리의 블로잉 기술(바람을 불어 슬라이드에 세포를 고르게 도말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Roche와 2019년 2월에 계약을 맺었다. 일본 Roche를 통해 글로벌 Roche를 소개받았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동사는 초기 2년 간의 Ventana 장비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2039년 말까지 해당 장비에 활용되는 소모품 성격의 자궁경부암 바이알 하나당 정액 로열티 약 300원을 수취하게 된다.

비부인과 제품은 우리가 완제품을 납품하면 Roche가 글로벌 유통을 진행하는 구조다. 검체에 따라 보존시약이 달라서 보존하는 시약을 다르게 해서 소모품 제품이 출고된다.

Roche의 액상세포 검사용 장비인 벤타나 SP 400에 우리 기술이 적용되었고, 지난 2025년 6월에 출시되었다. 일본 출시 행사 때 Roche가 벤타나를 부스 가장 가운데 배치하였고, 관람객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글로벌 진단기업이라 업무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출시가 가능하며, 미국은 FDA 허가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진단사 판매전략의 핵심은 패키지 전략으로 Roche의 장비에 완전히 동일한 바이알이 사용된다. 우리 바이알은 Roche의 cobas나 이번에 출시된 ventana 모두에 사용된다. 우리 제품은 8월에는 출고가 될 예정으로 9~10월에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Q)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서 Roche의 입지?

A) Roche는 2010년부터 분자진단 역량을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 자궁경부암 시장이 세포진단이 HPV 분자진단에 선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세포진단 시장의 강자인 Hologic과 BD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분자진단 파트너를 선택하는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Roche가 세포진단 장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Q) Roche와 향후 추가적인 파트너쉽을 기대할 수 있을까?

A) Roche의 병리진단 사업은 전세계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Roche는 신텍 플러스라는 자궁경부암 세포면역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작년 해당 진단기기가 ASCCP와 WHO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블로윙 기술을 활용하면 세포도말이 매우 고르게 잘되기 때문에 세포면역진단에도 적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부인과 외에 비부인과 시장으로의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출시할 얼리팝 브러쉬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경쟁우위 및 파이프라인

Q) 우리 기술의 강점은?

A) 액상세포검사(LBC) 기술은 Hologic과 BD가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그 다름 우리가 3번째로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Hologic의 침전식 방식은 세포 중첩 문제가 발생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 BD의 필터식은 에어홀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우리 기술인 블로윙 기술은 검체를 고르게 발라낼 수 있어 민감도가 73%까지 상승할 수 있다.

우리 기술은 자궁경부암 외 비부인과인 폐암, 인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다른 장점이다.

Q) 올해 3월 FDA 허가를 받은 "얼리팝 브러쉬"는 무엇인가?

A) 얼리팝(Early pap) 브러쉬는 자궁경부암 세포 자가채취 키트다. 기존 HPV 자가채취 브러쉬는 끝단에 면봉이 달려있다. 분자진단 방식은 점액질만 묻혀나오면 되지만, 세포진단은 자궁경부에서 점액질뿐 아니라 세포까지 채취해야된다.

의사들은 육안으로 보면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얼리팝이라는 제품은 자궁경부와 그 주변 상태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여 정확하게 탈락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우리 브러쉬는 자궁경부의 endocervix, ectocervix 세포를 모두 잘 채취할 수 있게 브러쉬가 꽃처럼 피어나는(bloom) 모양이고, 돌기가 있어 세포를 붙잡아(grip) 쉽게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 기술을 우리는 "블룸앤그립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Q) 얼리팝 관련 임상결과가 있나?

A)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 임상결과가 잘 나왔다. 국제 세포병리학회에서 포스터를 내고 베스트 e-포스터로 선정되었다.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은 완료돼서 수준있는 저널에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심사하고 게재되는 기간까지는 3개월~6개월 사이를 예상한다. 논문이 나오면 국가별로 출시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에 대한 수검자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이 긍정적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셀프채취 비교한 논문. 자궁경부암 검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정책적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에 있어 의사 채취에서 수검자 채취로 넘어가는 건 이미 WHO, FDA에서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Q) 기존에 출시된 HPV 셀프 브러쉬와 비교했을 때 얼리팝의 경쟁력은?

A) 얼리팝 브러쉬는 의사 채취를 자가채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얼리팝은 최초로 HPV, STD뿐 아니라 액상세포검사인 LBC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제품으로 나와있는 hpv 셀프 브러쉬 중에 의학적으로 허용된 게 7~8개 정도인데, 우리 제품과 다르게 세포채취가 안 된다. HPV 양성이 나오면 또 세포채취해야되는 불편함이 있다.

가격 차이가 크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일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HPV 진단을 위한 검체, 세포진단을 위한 검체를 두 번에 나눠서 채취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시장은 세포 채취까지 가능한 브러쉬를 바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출시된 HPV 셀프브러쉬는 약 2,000원~3,000원 대에 가격이 형성되어있고, 우리 제품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Q) 간단해보여서 카피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특허가 있나?

A) 국내 특허 출원하면서 PCT 특허가 출원되며 향후 20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가 여러 개 이미 나 있는 게 있고 PCT로 특허 출원 중인데도 있다. EU 30개국 정도가 PCT 체약국에 포함되어있다.

카피 제품이 나온다하더라도 우리 제품과 같은 시장을 공유한다고 할 수 없다. 카피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의료행위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피시장은 돈을 벌기 어렵다. 우리는 임상까지 완료해서 학술적으로 보장돼서 사용되는 주요 시장(종합병원, 이름있는 의료센터 등)을 타겟팅하려고 한다.

Q) 얼리팝으로 어떤 국가에 판매할 계획인가?

A) 블로윙 테크놀로지로 진입했던 국가들에 똑같이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일부 포함 개별 국가 위주로 인증을 받아서 출시할 수 있는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로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데, 미국, 호주와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서유럽 국가들은 관련 인증을 받고 27년에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는 각 국가별로 총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아예 블로윙 기술에 대한 부분처럼 Roche처럼 글로펄 파트너를 찾는 것도 고려 중이다. 아니면 글로벌 파트너에게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글로벌 파트너가 진행 안하는 국가는 국가별 총판 두고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Q) 자궁경부암 세포 자가채취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궁경부암 진단 시 글로벌 파트너사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A) 세포 진단은 채취와 검사가 이원화되어있다. 부인과에서는 검체 채취만 담당하고, 병리과에서는 채취된 검체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걸로 이원화돼있다. 얼리팝 브러쉬는 이 중 세포를 채취에 해당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진단 장비와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진단 장비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진단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통해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Q) 얼리팝 생산 캐파?

A) 현재 1년에 국내 생산이 500만 개 밖에 안된다. 한 번에 확장할 수 없어서 내년까지는 개별국가 몇 개국만 판매 진행할 예정이다. 27년부터는 대량생산, 대량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출시 계획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증설하려고 한다. 빠르며 이번달 안 땅에 대한 가계약하고 그 다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착공은 연말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년 정도 안에 생산 준비 끝나고, 27년부터 대량생산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베트남에는 총 6기의 라인을 두려고 하고 초기 물량은 5천만개, 향후 최대 3억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내는 현재 수동으로 생산 중이다. 생산이원화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내에서 생산은 접고 다 해외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Q) 얼리팝 향후 판매량이나 매출 추정치?

A) 5년 후 2030년 정도에는 약 1억개 정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판매단가는 개당 1500원 정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 2034~5년쯤에는 연간 9~10억 개 정도의 브러쉬 소요된다고 본다.

인증 및 임상이 기반이 되는 고가 시장은 3~4억 개로 보고 있다. 나중에 새로운 카피 제품이 나와도 투자를 해서 임상을 해서 입증하는 데에는 진입장벽이 있을 것이다. 저가시장은 카피 제품들과 원가경쟁력 가지고 싸워야 돼서 메리트가 없다.

Q) 자궁경부세포 셀프 테스트가 임상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작년 HPV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자가채취가 WHO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검사받는 데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검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머징 국가는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채취키트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가채취 방식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도입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3~4년 안에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를 맞춰나가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1~2년 안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4. 재무 전략 및 기타

Q) 현재 영업현황과 2026년 목표는?

A) 2Q25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 같지만, 상반기로는 여전히 적자일 것 같다.

Roche의 벤타나 장비는 6월 말 출시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연간 매출 65억원과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은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Q) Roche 파트너십 기반의 장기 매출 목표는?

A) 현재 시장에서 1년에 4~5억명 정도 테스트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 HPV는 세포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일부만 진행하기 때문에 Roche는 몇천만명 정도이다. 2030년에는 검진 인구가 두 배 정도로 많이 올라 약 8~9억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HPV가 세포진단보다 선행하게 되면 Roche가 현재의 홀로직만큼은 한다고 보고 시장점유율 3~4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

Q) 얼리팝 브러쉬에 대한 가이던스는?

A) 올해는 30만개 판매하여 매출 6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에는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에 진출하여 판매량을 200만개로 확대하여 매출 40억원을,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침투를 시작하여 판매량 1,000만개로 매출액 150억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기존에 FDA 승인을 받은 HPV 셀프 브러쉬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팔린다. 우리는 이보다 판매단가를 낮게 책정하려하고 있고 국내 대신 베트남 생산 시 판매단가는 더 낮출 수 있다. 영업이익률은 대략 4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Q) 흑자전환 시 발생할 현금의 활용전략은?

A) 5년 후에 현금이 몇천억이 쌓일텐데 배당 등 주주환원에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M&A 등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경영은 관심이 없다. 의료기기 회사로서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본업에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나갈 것이다.

Q) 최대주주 지분 매도 이유는?

A)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8월 초에 펀드에 약 190억을 매각할 예정이다. 지분 45% 중에 4%를 매각한 것이다. 인수하는 펀드는 6개월~1년 정도 락업이 걸려있다. 대주주의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걸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로슈하고 계약을 맺은 이후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벤타나 SP 400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최대주주가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다. 출시 확정이 되고 나서야 미뤄오던 지분 매각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진행하였다.

리스크 요인

① **재무 리스크:** 현재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특허권 등 자산의 상각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현금성 지출은 많지 않다. 부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해 1분기 기준 2.4%로 매우 낮은 편이다.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45억원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적은 상황이다.

② **사업적 리스크:** HPV 셀프테스트 시장이 개화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의료계의 반응에 따라 도입속도가 더딘 곳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HPV 진단 선행으로의 변화로 인한 로슈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보다 가파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③ **주가 리스크:** 작년 3분기 급등했던 동사의 주가는 Ventana SP 400 장비의 출시가 시장 예상 대비 지연되며, 올해 1분기 전고점 대비 약 50% 가량 하락하였다.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대한 뉴스나 차세대 제품 출시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다인 (31493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4**	**12**	**4**	**5**
매출원가	**3**	**3**	**3**	**3**
매출총이익	**1**	**9**	**1**	**2**
판매비와관리비	**3**	**3**	**3**	**4**
조정영업이익	**-2**	**7**	**-2**	**-2**
영업이익	**-2**	**7**	**-2**	**-2**
비영업손익	**-9**	**0**	**1**	**2**
금융손익	0	0	1	1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11	7	-1	0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2	0	0
계속사업이익	-11	6	-1	0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11**	**6**	**-1**	**0**
지배주주	-11	6	-1	0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11**	**6**	**-1**	**0**
지배주주	-11	6	-1	0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1	8	0	0
FCF	-1	1	0	0
EBITDA 마진율 (%)	-25.0	66.7	0.0	0.0
영업이익률 (%)	-50.0	58.3	-50.0	-40.0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275.0	50.0	-25.0	0.0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28**	**23**	**21**	**22**
현금 및 현금성자산	9	11	10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0	1	1
재고자산	1	2	0	0
기타유동자산	17	10	10	16
비유동자산	**18**	**22**	**23**	**22**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유형자산	11	11	11	11
무형자산	5	5	4	3
자산총계	**46**	**45**	**44**	**44**
유동부채	**7**	**1**	**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	0	0	0
단기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6	1	1	1
비유동부채	**0**	**0**	**0**	**0**
장기금융부채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부채총계	**7**	**1**	**1**	**1**
지배주주지분	**38**	**44**	**43**	**43**
자본금	3	3	3	15
자본잉여금	66	66	66	54
이익잉여금	-20	-14	-15	-15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38**	**44**	**43**	**43**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3**	**0**	**1**
당기순이익	-11	6	-1	0
비현금수익비용가감	10	3	1	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1	1	1
무형자산상각비	1	1	1	1
기타	8	1	-1	-2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0	-5	0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1	0	0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1	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0	0	0
법인세납부	0	-1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	**-1**	**-2**	**-6**
유형자산처분(취득)	-1	-1	-1	0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5	0	-1	-6
기타투자활동	1	0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	**0**	**0**	**0**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3	0	0	0
자본의 증가(감소)	53	0	0	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18	0	0	0
현금의 증가	**6**	**1**	**-1**	**-5**
기초현금	3	9	11	10
기말현금	9	11	10	5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1	2022	2023	2024
P/E (x)	-18.4	25.1	-405.0	44,493.5
P/CF (x)	-342.0	16.7	-1,115.2	-3,417.5
P/B (x)	4.2	2.6	7.5	8.9
EV/EBITDA (x)	-180.9	14.6	-991.7	-4,249.2
EPS (원)	-378	189	-33	0
CFPS (원)	-20	283	-12	-5
BPS (원)	1,651	1,841	1,811	1,805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 (%)	2.5	224.5	-66.5	28.9
EBITDA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적지
EPS증가율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매출채권 회전율 (회)	4.0	18.3	8.5	8.6
재고자산 회전율 (회)	3.4	9.0	4.2	12.1
매입채무 회전율 (회)	28.3	17.6	29.9	47.3
ROA (%)	-30.6	12.3	-2.2	0.0
ROE (%)	-47.7	13.6	-2.3	0.0
ROIC (%)	-18.0	34.8	-9.9	0.9
부채비율 (%)	19.0	2.8	1.4	2.7
유동비율 (%)	382.7	1,827.9	3,499.6	1,948.4
순차입금/자기자본 (%)	-66.1	-46.9	-45.4	-47.9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10.9	15,086.6	-9,196.4	-9,941.4

자료: 바이오다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